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기후변화 대응 산림 전초기지 조성

습도 높아 난대림 생육 최적...한반도 2100년 아열대 면적 21% 예측 붉가시나무 1ha 이산화탄소 7.89t 흡수...온난화 대비 유망 수종 개발

완도에 조성 중인 국립난대수목원이 한반도의 난대아열대에 대응하는 산림 전초기지로 조성된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는 완도는 연평균 섭씨 14.3도, 강수량 1천510mm의 전형적인 난대기후이다.

따뜻한 제주난류와 차가운 서한연안류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아 난대림 생육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 난대림 9852ha 중 35%인 3446ha가 분포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에 아열대 면적이 국토 면적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난대아열대화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에 대비해 국토의 기후조건에 맞는 수종을 개발하고 나무의 생장 기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난대아열대 숲을 조성하고 가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산림청의 판단이다.

난대수종은 상록활엽수가 많아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완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붉가시나

무는 1ha 면적에서 이산화탄소 7.89t을 흡수해 탄소흡수와 저장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은 기존의 완도수목원을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난대아열대권역 산림유전자원 연구와 함께 온난화에 대비한 유망 수종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산림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붉가시나무와 황칠나무, 구실잣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적극 발굴하고 크고 곧은 나무로 개량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난대림 조성을 통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연구기관 기능은 물론 사계절 푸르고 온난한 기후를 살린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난대숲과 다도해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도 조성한다.

정연국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은 원시 상태의 난대숲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미래 산림을 이끌어 갈 국내 최대 난대식물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되는 완도수목원 전경.

세계 유산 신안갯벌, 국제 생태교과서로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와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프로그램 추진

신안군은 세계유산 신안갯벌에서 해양수산부와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RSPB) 교류협력사업인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일까지 목포 오션호텔에서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를 초청, 바닷새 서식지 복원의 중요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중요성을 차지하는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에서도 독특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수문학적 연안 퇴적체계와 높은 종 다양성을 가진 다양한 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이동을 하는 철새의 부양에 중요성

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강사로 초청된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2023년 국제 철새포지사업에 참석해 신안갯벌을 둘러보고 느낀 갯벌과 수많은 바닷새에 대한 인상깊은 기억에 따라 신안갯벌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갯벌은 수십년에 걸친 꾸준한 보호관리와 복원을 통해 갯벌유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현장실습으로 선정된 만큼 살아있는 생태교과서인 신안갯벌을 전 세계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생활도자 활용 '무안행도 프로젝트' 본격화

김산 무안군수 "특화산업 육성" 도자 인프라 구축·일자리 창출 등

무안군이 도자문화·산업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무안행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무안행도는 '무안군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자기'라는 뜻으로 전국 최대 생활도자 주산지인 무안의 자원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무안 도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의미한다.

무안군은 최근 도자문화·산업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전남도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프로젝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기본계획 기초를 마련했다.

보고회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정은경 군의회 부의장, 박성배 산업건설위원장과 도자기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무안 도자문화 산업특구 계획인 무안도자산업 기반조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비전과 세부단위사업 ▲지역현황과 여건분석 ▲연차별·단위사업별 사업계획 ▲경제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도 포함됐다.



무안군이 도자문화·산업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무안행도 프로젝트'의 추진에 나섰다. <무안군 제공>

이를 통해 지역 내 집적화된 도자산업 자원 활용과 특화산업에 의한 도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무안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계능공단지 일원이 '무안 도자문화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은 청계능공단지를 중심으로 67개 업체가 집적화된 전국 최대 생활도자 주산지이다"며 "명품 브랜드 개발과 해외 마케팅에 적극 투자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도자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경찰,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논의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

목포경찰은 지난 3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과 국가안보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서 지휘부와 안보자문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자문협의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위촉하고, 탈북민지원과 국가안보 자문 등 협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명삼 회장(직무대행)은 탈북민 지원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상 목포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안보자문협의회 등 협력단체들과 공동지원을 펼쳐 안전하고, 평온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 배추 정식 한창 들녘마다 일손 분주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땅끝 해남의 황토 들녘마다 배추 정식이 한창이다.

해남군은 올해 배추재배의 현황조사결과, 총 4300여ha 면적에서 가을·겨울배추를 재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밝혔다.

9월 초 정식하는 가을배추는 10월 말부터 수확하는 김장배추이다. 겨울배추는 9월 중순까지 정식을 마치고, 겨울철 월동 후 12월부터 수확한다.

해남배추는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고, 단단하고 짙게 여문 노란 속이 특징이다. 김치를 담가도 아삭하고 단맛 나는 식감이 오랫동안 유지돼 김장김치에 최적화된 '명품 배추'로 통하고 있다.

해남겨울배추는 지난 200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 제11호로 지정돼 그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장배추 수확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진다.



해남의 황금 들녘에 배추를 심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관계자는 "배추가격 안정을 위한 배추작목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도 341ha 가량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명절 앞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합동단속반 편성 13일까지 전통시장·회센터 등

완도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완도군은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회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3대 연중 품목(황돔, 활장어, 냉장명태)과 7대 테마 품목(참조기, 주꾸미, 대게, 활우렁쉥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돌류, 농어, 점성어, 소금)이다

완도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 수산물 표시이

행 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도기박물관 교육 참여 초·중학생 모집

영암군은 영암도기박물관이 12월까지 진행하는 '2024 찾아가는 영암도기박물관'에 참여할 초·중학생 교육단체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거리·여건상 도기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교육생이 있는 곳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가비 무료인 교육에 참여할 단체는 교육생을 1개 반에 15명으로 편성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소외계층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교육은 아이들이 영암 구림도기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알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국내 첫 고온 유약 그릇인 구림도기 특성을 알리고, 도기 모양틀에 석고와 향오일을 재료로 석고방향제를 만드는 체험까지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영암도기박물관(061-470-6855)에서 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